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오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위기 현실화

산자부, 예산 삭감안 마련 요구
올해 30%·내년 40%까지
캠퍼스 건설·인력 충원 차질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측에 올해 30%, 내년 40% 정도의 예산 삭감안 마련을 요구한 일련의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산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 여권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가 광주·전남 핵심 현안사업이라는 점에서 호남 배려를 내세운 여권의 서진정책도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광산 을)에 따르면 산

자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올해 한전 등 전력회사 출연금 예산 1588억 원 가운데 30% 정도 삭감할 것을 통보했다. 또 내년 출연금 예산 1321억 원 가운데 40% 정도의 삭감안 마련도 요구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는 산자부의 요구에 따라 예산 삭감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캠퍼스 건설 차질 등 기존 완공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는 입장이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현재 잡혀져 있는 예산도 빠듯한 처지에 삭감하라는 것은 사실상 완공 계획을 2-3년 이상 늦추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출연금 예산 삭감은 교직원 인건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산자부의 입장은 사실상 한전 등 전력회사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과대 측으로부터 예산 삭감안을 받아 한전의 출연금 축소를 뒷받침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출연금 축소 논란에 대한 김희재 민주당 의원(여수 을)의 질의에 "현재 한전이 워낙 어려워 전반적인 투자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후 "한전, 한전공대와 협의하고 있고 이후 재정당국과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에 대한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출연금 축소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민주당 및 지역 정치권과의 정치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적법성 감사에 이어, 한전의 출연금 축소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부 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한국에너지공과대에 대한 직무와 책임을 유기할 경우, 해임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에 대해 여권이 발목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입장에서 한전의 출연금 삭감은 정치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민형배 의원은 "한전 등 전력그룹사의 출연금 축소는 결국 한국에너지공과대의 원공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의 결과인 한전 적자의 책임을 한국에너지공과대에 묻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누리호 발사 성공... 위성 8기 궤도 안착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우주 산업 활성화 포문 열어

"5, 4, 3, 2, 1, 발사!"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누리호 1단 로켓의 끝에서 강한 불꽃이 터져나오면서 길이 47.2m, 무게 1500kg짜리 육중한 몸체의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해질 녘 붉은 빛을 머금은 다도해를 배경으로 다시 한 번 우주로 날아오르는 순간이었다. <관련기사 2면> 이번 3차 발사가 앞선 두 차례 발사와 달리 사상 처음 실제 위성을 싣고 운반하는 실전 임무라는 점에서 누리호 발사 성공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을 입증하면서 우주 산업 활성화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누리호는 25일 오후 6시 24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뒤 오후 6시 39분 목표 고도 550km에 이르러 8차 위성이 분리되면서 궤도에 안착했다. 1단 엔진은 고도 66km에 도달, 분리했고 오후 6시 28분께 고도 263km에서 2단 엔진이 분리됐다.

앞서, 이륙 후 3분이 지나면서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을 분리했다. 누리호는 2단부 분리 뒤 3단부의 7 t급 액체엔진을 작동했고 오후 6시 37분께 3단 엔진이 정지되며 목표 궤도(550km)에 도달했다. 이후 차세대 소형 위성(2호-KAIST 개발)과 큐브 위성인 저스택, 루미르, 카이로 스페이스, 도요샛(한국천문연구원) 4기 등 8기의 위성을 잇따라 분리했다. 다만, 도요샛 4기 중 한 기는 사출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누리호는 로켓 3개가 하나로 조립된 3단형 로켓이다. 1·2단은 7 t급 액체엔진으로 이뤄져 누리호가 더 멀고 높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3단은 7 t급 액체엔진 1기로 목표 궤도까지 날아가 위성을 안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오후 6시 42분께 누리호

의 비행이 종료했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이번 발사를 통해 실제 위성을 550km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려놓는 목표 달성도 성공,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상업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점을 입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초로 발사에 참여해 제작 총괄 관리, 발사 공동 운용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우주 개발 시대를 여는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도 적지 않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차 발사부터 참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6차 발사에서는 발사책임자, 발사운용책임자 및 발사관제센터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고흥 나로우주센터=김지을 기자 dok200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JEONNAM
전라남도 방문의 해
2022-2023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

신안 퍼즐교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너도, 나도, 남도

남도여행길잡이

검색